2026년 11월 태국 관광시장 동향

'26. 11. 25(수) /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

□ 태국 관광시장 동향

○ 태국 방문 외래객, 11월 14일 누적 약 2,67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6% 감소

- 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11월 14일 태국을 방문한 외래객은 약 2,67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외래객 지출액은 약 1조 3,049억 바트(약 51.74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94% 감소함
- 국가별로는 중국 4,385,062명, 말레이시아 3,384,864명, 인도 2,013,658명, 러시아 1,515,102명, 한국 977,164명 순으로, 한국은 5위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1~10월 누적 기준 상위 10개 시장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율(-26.86%)을 기록함

○ 중국 내 태국여행 안전 우려 확산 및 방태객 감소에 따른 태국 정부 차원 대응 착수

- 주태국 중국대사관이 10.16 허위 구인·투자 사기·불법 구금 피해 등 자국민 피해 우려로 인한 방태 안전 권고를 발표한 이후, 10월 방태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13.57% 감소하였으며, 태국인바운드관광협회(ATTA)는 중국인 관광객의 안전 우려가 지속될 경우 11~12월 중국인 입국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하고, 2027년 춘절 중국인 단체관광은 5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중국은 태국 인바운드 관광객 1위 국가로, 안전 이미지 악화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가 연말 성수기 태국 외래객 유치 목표 달성의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으며, 수라삭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과 장젠웨이 주태 중국대사는 11월 5일 양자회담을 갖고 관광객 보호를 위한 양국 공동 실무그룹을 출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

○ 태국 3분기 경제성장률은 개선되었으나, 외래객 감소로 관광·서비스 회복세는 제한적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로 2분기(2.4%)보다 개선되었으나, 아세안 주요 6개국 중 5위에 머무름. 수출 및 민간투자 확대가 성장을 견인한 반면, 외래객은 706.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하였으며, 숙박·음식업 성장률도

2분기 2.1%에서 3분기 1.9%로 둔화됨. 다만 3분기 외국인 관광서비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하여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간 상이한 흐름을 보였으며 이는 장거리 관광객의 비중 확대 및 평균 체류기간 증가 등에 따른 관광소비확대 영향으로 추정

※ 3분기 아세안 주요국 성장률: 베트남 9.9%, 인도네시아 5.5%, 싱가포르 5.4%, 말레이시아 5.3%, 태국 2.9%, 필리핀 2.1%

- 태국의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90% 상승하여 9월(2.82%)보다 상승 폭이 커졌으며, 특히 유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10월 소비자신뢰지수(CCI)는 9월 52.1에서 50.9로 하락하여,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는 데 신중해진 것으로 보임

○ 태국상공회의소대학(UTCC), 베트남 등 역내 경쟁국 대비 태국의 관광경쟁력 약화 우려

- 태국상공회의소대학(UTCC)은 2026년 태국 방문 외래객을 약 3,150만 명(전년 대비 -4.5%)으로 전망하고, 2027년에는 약 3,400만 명(+7.9%), 관광수입 약 1.632조 바트(약 64.53조 원)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관광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함. 관광업계 설문조사에서는 외래객 4천만 명 달성 시점을 2031~2032년(32.2%) 또는 2033년 이후(30.4%)로 예상한 응답이 62.6%에 달했으며,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응답한 비중도 9.1%를 기록함
- 특히 조사 대상 관광업체의 59.1%가 태국의 관광경쟁력이 역내 경쟁국 대비 뒤처진다고 평가하였으며, 베트남의 신규 관광지 개발, 가격경쟁력 및 국제선 항공 연결성 확대 등을 주요 경쟁 요인으로 지적하고 항공 접근성 개선, 가격 대비 만족도 제고 및 관광객 안전 신뢰 회복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함

□ 정부정책 동향

○ 태국 정부, 2026년 외래객 유치 목표 3,15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말 관광수요 진작 및 항공편 공급 확대 추진

- 태국 정부는 현 추세에 따른 2026년 외래객 전망치(약 3,120만 명)를 상회하는 3,1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연말 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임. 태국관광청

(TAT)은 11~12월 외래객 유치 목표를 총 600만 명으로 설정하고, 항공사 지원, 호텔 프로모션, 축제 및 야간관광 활성화 등 집중 마케팅을 통해 추가 관광수요 창출을 추진함

- 특히 'Thailand Winter Plus'(11~12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중국·말레이시아·홍콩·대만·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걸프협력회의(GCC) 등 9개 시장·권역을 대상으로 외래객 30만 명 이상 추가 유치 및 단거리 시장 관광객 190만 명 이상 확보를 추진함. 아울러 'Thailand Winter Blast' (2026.11.~2027.3.)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기 200편 이상 운항 지원 및 5개 이상 항공사와의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동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항공좌석 약 106만 석을 추가 확보하여 연간 외래객 3,4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시장 회복에 주력할 계획

○ **태국관광청, '축제경제(Festival Economy)' 전략으로 연말 성수기 체류 및 소비 확대 추진**

- 태국관광청(TAT)은 2026년 내국인 국내여행을 당초 목표보다 100만 건 증가한 2억 600만 건으로 전망하고, 국내관광 수입 전망치도 기존 1조 1,200억 바트(약 44.29조 원)에서 1조 2,200억 바트(약 48.24조 원)로 상향 조정함. 특히 로이끄라통 축제 기간 국내여행은 약 183만 건(전년 대비 +6%), 관광수입은 약 60억 바트(약 2,373억 원, +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치앙마이 이뼁 축제(11.23.~25.) 기간 숙박시설 예약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축제 연계 관광수요 증가세가 두드러짐
- TAT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축제경제' 전략에 따라 아유타야 로이끄라통 축제(11.21.~24.)를 중심으로 치앙마이·수코타이 등 5개 지역의 전통 축제를 연계하고, 로이끄라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 중임. 아울러 방콕 짜오프라야강 빛 축제 'Vijit Chao Phraya'(11.13.~12.13.), 방콕 마라톤(11.28.~29.)을 비롯해 12월 Wonderfruit(12.3.~7., 촌부리), Tomorrowland Thailand(12.11.~13., 촌부리), EDC Thailand(12.18.~20., 푸켓) 등 대형 국제행사와 연말 카운트다운 축제를 집중 개최하여 관광객 체류 기간 및 소비 확대, 지방 관광수요 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 로이끄라통(Loi Krathong): 매년 태국 음력 12월 보름에 강이나 호수에 꽃·초 등으로 장식한 작은 배(끄라통)를 띄워 물의 여신에게 감사하고 액운을 씻어내며 소원을 비는 행사

* 이뼁(Yi Peng): 태국 북부 란나(Lanna) 왕국의 전통문화에서 유래한 등불 축제

○ **태국, 외국인 관광세 450바트(약 1.8만 원) 징수안 2027년 하반기 시행 전망**

- 태국 관광체육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450바트(약 1.8만 원)의 관광세 신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8.24.~9.28., 5,954명 참여) 결과 관광세 도입 규정안에 80.5%, 450바트 요율에 78.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징수액은 외국인 관광객 보험 가입, 관광시설 개선 및 관광자원 보전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항공 입국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육로·해상 입국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다만 관광세 도입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내각 승인 및 관보 게재 후 180일의 유예기간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는 빠르면 2027년 6~7월부터 시작될 전망임. 면제 대상과 징수 방식 등 세부 기준은 관계기관 간 협의 중

○ **태국 이민국, 자동입국심사 대상 33개국으로 확대, 한국인 이용자 3위 기록**

- 태국 이민국은 9.18부터 자동입국심사(ABC, Automated Border Control) 이용 대상을 기존 싱가포르·홍콩에서 한국·일본·말레이시아 등 33개국·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완나품 공항에 입국용 39대·출국용 67대의 자동심사대를 운영하고 돈므앙·푸껫 공항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임
- 9.18~10.31 기간 외국인 이용자는 총 94,760명으로, 확대 시행 이후 일평균 이용자가 744명에서 2,125명으로 185.6% 증가하였으며, 국적·지역별로는 싱가포르(21,684명), 홍콩(14,259명), 한국(9,615명), 일본(9,538명), 말레이시아(6,943명) 순

□ 기타 동향(태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동향)

○ **2026 태국인 해외여행 연성장률 3%로 둔화 전망, 방한 증가율은 주요국 중 최고치**

- 태국 카시콘리서치센터(KResearch)는 2026년 태국인 해외여행 규모가 약 1,345만 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여 2025년(+12%) 대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주요 요인으로는 항공권 가격 상승, 관광 관련 세금·수수료 및 현지 물가 부담 증가,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있으며, 중산층의 여행 빈도 감소와 기업 인센티브 여행의 가격 민감도 심화 예상
- 2026년 1~9월 태국인 해외여행 주요 목적지별 방문객 증가율은 한국(+14.7%)이 비교 대상 7개국·지역 중 가장 높았으며, 중국(+6.7%), 홍콩(+3.5%), 일본(+2.4%), 대만(+1.8%) 순으로 증가한 반면 싱가포르(-4.2%)와 말레이시아(-3.4%)는 감소함

○ **태국인의 해외여행 항공·숙박비 외 세금·수수료 등 기타 경비 부담 확대**

- 태국 카시콘리서치센터(KResearch)에 따르면 태국인의 해외여행 관련 세금·수수료 부담은 목적지에 따라 1인당 여행경비의 약 3.5~9.5% 수준으로 분석됨. 주요 비용은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여객서비스료·출국세, 출발 전 전자결제 방식의 입국 수수료·전자여행허가(ETA)·환경부담금, 현지 숙박세 등으로 구분되며, 여행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 확대가 예상됨
- 주요 목적지별 여행경비 대비 세금·수수료 비중은 싱가포르(9.5%), 홍콩(8.5%), 대만(5.4%), 일본(4.8%), 한국(4.3%), 중국(4.0%) 순으로 한국은 주요 아시아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태국 공항 여객서비스료 1,120바트(약 4.4만 원)를 포함한 1인당 부담액은 싱가포르 2,855바트(약 11.3만 원), 홍콩 2,654바트(약 10.5만 원), 일본 2,451바트(약 9.7만 원), 대만 1,902바트(약 7.5만 원), 한국 1,732바트(약 6.8만 원), 중국 1,578바트(약 6.2만 원)로 추산됨.

○ **2027년 태국인 여행객 SNS 영향력 확대 및 단기·실속형 여행 선호 확산 전망**

- 글로벌 호텔 기술기업 SiteMinder가 태국인 869명을 포함한 14개 시장 여행객 12,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hanging Traveller Report 2027' 조사에 따르면, 태국인 여행객의 75%가 SNS 콘텐츠 제작자의 사진·영상이 여행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며 세계 평균(52%)을 크게 상회함. 또한 응답자의 54%가 2027년 여행 확대 의향을 보였으나, 단기여행 선호(34%), 여행경비 절감(38%), 근거리 여행 선호(38%) 등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실속형 여행 수요 확대 전망
- 숙박시설 선택에서도 일반 객실(Standard Room) 선호 비중이 62%(세계 평균 43%)로 높게 나타났으며, 48%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을 통한 숙박 예약을 선호하고 52%는 가격 비교의 편리성을 주요 이용 이유로 응답함. 아울러 90%가 일정 조건하에 인공지능(AI)을 통한 숙박 예약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가격 하락 알림(60%), 숙박 후기 요약(53%) 등 가격 비교와 정보 탐색 기능에 높은 관심을 보여 향후 SNS 기반 여행정보 제공과 OTA 연계 판촉, 가격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

○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Klook), 태국인 연말 해외여행 예약 일본 1위, 중국·홍콩 관광수요 확대 및 체험형 여행 선호 증가세**

-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Klook)의 2026년 연말 태국인 해외여행 사전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이 전체 예약의 37.5%를 차지하며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지로 나타났으며, 홍콩(15.8%)과 중국(13.9)이 뒤를 이어 싱가포르(11.7%)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조사됨. 특히 중국은 상하이(43%)·베이징(29%) 등 기존 인기 도시 외에 주하이(16%) 등 신규 관광지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하이의 12월 예약 건수는 11월 대비 2.65배 증가하는 등 중국 내 여행 목적지 다변화 추세
- 태국인 연말 해외여행 예약은 밀레니얼·Z세대가 주도하고 있으며, 평균 여행기간은 5~7일로 나타남. 특히 테마파크가 전체 관광체험 예약의 49.9%를 차지하는 등 체험형 관광콘텐츠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중국에서는 자연경관 관광, 일본에서는 전통문화 체험, 싱가포르에서는 콘서트·공연 등 목적지별 특화 콘텐츠 수요가 두드러짐. 이에 따라 주요 관광지 방문뿐 아니라 개별 관심사에 맞춘 차별화된 관광체험이 여행 목적지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함을 보여줌

○ **중국 쿤밍, 상호 무비자 및 항공 연결성 확대로 태국인 방문 수요 증가**

- 중국 쿤밍 출입국검사소에 따르면 2026년 1월~11월 22일 쿤밍 창수이 국제공항의 태국·중국 간 국제선 운항은 6,860편 이상, 출입국 여객은 약 102만 명을 기록함. 외국인 승객 약 29만명 중 태국인이 8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 특히 태국인 중국 입국자 중 상호 무비자 협정을 이용한 방문은 약 11.2만 건으로 전체의 96% 이상을 차지하는 등 무비자 정책이 관광수요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쿤밍은 방콕·치앙마이·푸켓 등 태국 주요 도시와 직항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태국·쿤밍 간 항공편은 일평균 21편, 최대 29편까지 운항하는 등 항공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음. 특히 쿤밍을 거점으로 리장·샹그릴라 등 윈난성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는 단거리·문화체험 관광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무비자 입국 편의성과 항공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태국인 해외여행시장 공략이 강화되는 추세

□ 지사 의견 및 향후 사업 방향

○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지 여행업계 협력 강화 및 공동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우수여행사 시상 및 업계 지원 제도 안내 등을 통한 방한상품 판매 동기 제고, 2027년 주요 사업계획 공유 등을 통한 현지 업계와의 협력체계 강화
- 주요 여행사·항공사·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등 현지 관광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장 특성을 반영한 공동 프로모션 및 신규 방한상품 개발 등 2027년 실질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 구체화 추진

※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및 태국 관광체육부 홈페이지 통계 자료 참고, 항공사 및 여행사 동향 정보 수집, 태국 관광청 보도자료 및 현지 언론 종합

1. https://www.thaipost.net/economy-news/1109636/ (Thai Post, 2026-11-16)
2.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tourism/40073165 (Nation Thailand, 2026-11-06)
3.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40073209 (Nation Thailand, 2026-11-07)
4.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economy/40073578 (Nation Thailand, 2026-11-16)
5.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economy/40073554 (Nation Thailand, 2026-11-16)
6.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economy/40073171 (Nation Thailand, 2026-11-06)
7.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53049/consumer-confidence-falls-in-october (Bangkok Post, 2026-11-12)
8.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tourism/40073060 (Nation Thailand, 2026-11-03)
9.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tourism/40073622 (Nation Thailand, 2026-11-18)
10.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tourism/40073523 (Nation Thailand, 2026-11-15)
11.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economy/40073675 (Nation Thailand, 2026-11-19)
12. https://www.khaosodenglish.com/featured/2026/11/11/flying-to-thailand-a-13-tourist-entry-fee-could-be-coming-in-2027/ (Khaosod English, 2026-11-11)
13. https://www.khaosodenglish.com/tourism/2026/11/05/thailand-expands-automated-immigration-gates-to-33-countries-and-territories/amp/ (Khaosod English, 2026-11-05)
14. https://www.kasikornresearch.com/th/analysis/k-social-media/Pages/Info540-Thai-Outbound-Travel-FB-04-11-2026.aspx (Kasikorn Research Center, 2026-11-04)
15.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358054/thrifty-thai-tourists-keen-to-travel-more-next-year (Bangkok Post, 2026-11-20)
16. https://www.thaipost.net/public-relations-news/1110387/ (Thai Post, 2026-11-17)
17. https://www.chinanews.com/aseaninfo/2026/11-22/10736199.shtml (China News Service, 2026-11-22)

붙임 **한-태 관광통계 및 항공운항 정보**

ㅇ 한-태 관광통계

(태국인 방한규모) '26.10월 기준 48,389명

구 분	'26.7월	'26.8월	'26.9월	'26.10월
태국 → 한국	21,318	19,748	23,545	48,389
(전년 대비)	(2.2%)	(4.8%)	(9.3%)	(18.2%)

(한국인 방태규모) '26.10월 기준 83,419명

구 분	'26.7월	'26.8월	'26.9월	'26.10월
한국 → 태국	87,847	95,066	70,997	83,419
(전년 대비)	(-32.6%)	(-29.0%)	(-30.1%)	(-38.8%)

ㅇ 항공동향

(한-태 항공노선) '26. 11. 19일 기준 주 160편 운항

항공사	주간 운항현황
대한항공	방콕-인천 주 28회 (매일 4편 운항)
	푸켓-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아시아나항공	방콕-인천 주 14회 (매일 2편 운항)
	푸켓-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타이항공	방콕-인천 주 21회 (매일 3편 운항)
제주항공	방콕-인천 주 4회 (일, 월, 목, 금 운항)
	방콕-부산 주 4회 (월, 목, 금, 일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4회 (월, 화 ,금 토 운항)
진에어	치앙마이-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트리니티항공	방콕-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방콕-대구 주 4회 (일, 월, 목, 금 운항)
에어부산	방콕-부산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2회 (월, 금 운항)
	치앙마이-부산 주 4회 (일, 수, 목, 토 운항)
에어프레미아	방콕-인천 주 5회 (일, 월, 화, 목, 금 운항)
이스타항공	방콕-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부산 주 7회 (매일 1편 운항)
타이 비엣젯	방콕-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총 계	**주 160편**